무스탕, 그곳에 '푸름'과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글 사진 · 남형윤(혜초트레킹)

나는 지금 히말라야 속에 감춰진 티베트 왕국, 무스탕으로 가는 길이다. 덜컹이는 7인승 지프차가 후레쉬로 길을 밝히며 굽이진 어둔 길을 뚫고 좀솜 마을에 도착하려는 참이었다. 서늘한 히말라야 바람이 창문을 넘어와 내 몸을 쓰다듬는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던 차는 어느새 조용하고 컴컴한 마을에 도착했다. 달빛에 반사된 2층 높이의 작고 밋밋한 게스트 하우스, 조용히 펄럭이는 타르초, 이 작은 것들만으로도 트레킹 전날의 밤을 설레게 하는데 충분했다. 반가웠다 이 거칠고 고독한 히말라야가.

왼쪽 독특하게 침식된 모래와 자갈길.
오른쪽 대창 콜라를 지나 야라로 향하는 길.

아침 해가 전날의 어둠을 밀어내면서 거칠고 독특한 침식 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황량한 모습에 쉽게 소화시키지 못하는 고독을 느꼈다. 이 고독함은 안나푸르나 B.C와 에베레스트 B.C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출발하기 전 찾아봤던 이곳의 역사가, 내가 느끼는 고독함의 이유를 알게 해줄까 싶어 다시 떠올려 보았다. 도로도 차도 기차도 없었던 15세기 티베트의 일부였던 무스탕은 히말라야 고원지대라는 지형적인 특징뿐 아니라 주변국의 상황으로 인해 티베트 본토보다 훨씬 변화가 적었다고 한다. 티베트가 몽골, 중국, 네팔, 영국 등과 국제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불교 역시 많은 굴곡과 변화를 보였던 반면, 무스탕은 네팔에 통합되어서도 자치권을 인정받아 600년 전 로(Lo) 왕국 건국 당시의 티베트 모습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간직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티베트를 점령한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 관계로 네팔 정부는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스탕에 외국인 출입을 통제했다. 그렇게 독립적이었던 왕국이 오랫동안 고립된 시간을 보내고, 출입이 불가했던 문을 1992년부터 열었다.

칼리 간다키(Kali Gandaki)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무스탕 완전일주 코스

7월 29일 토요일 아침이었다. 똑똑똑. "굿모닝 써(Sir), 티~" 아침 5시 반 어시스턴트 가이드 구상과 빈드라가 밀크티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어색한 잠자리에서 편하게 잠들지 못했던 몸을 일으킨다. 창 밖 너머 회색 구름이 가득한 하늘과 거대한 황색 절벽 바위를 보고 있으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기분이 들었다. 티베트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로지는 골목길이 많고 해가 잘 들지 않는다. 우리는 헤드램프를 켜고 문 밖을 나섰다. 멀리서 들려오는 칼리 간다키 강물 소리와 누군가 담벼락에 올려놓은 암모나이트 화석으로 인해 뜻 모를 신비함을 느끼다, 6시 반 아침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에 식당으로 발을 옮긴다.

무스탕 완전일주는 칼리 간다키 강을 중심에 놓고 거슬러 올라, 로만탕 도시를 반환점으로 두고 돌아오는 코스다. 칼리 간다키 강은 한때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했던 물줄기로 바다까지 흘렀다고 한다. 대륙판이 강하게 충돌해 땅이 밀려 올라 히말라야가 만들어지고도, 이 강은 계속 자신의 진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아침에 보았던 암모나이트 화석은 바다 밑의 지층이 급속히 융기하여 형성된 히말라야의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우리는 이 신비한 땅에서 시간을 한발씩 거꾸로 올라갔다.

1 성벽 도시 로만탕에서 무스탕의 오지, 야라를 향해 가는 길.
2 추상에서 샹보첸 가는 길. 칼리 간다키 강을 따라 걷는다.
3 티베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로지.
4 로지 방 안의 모습.
5 집 중앙이 뻥 뚫려 있어 빛이 안으로 잘 들어온다.
6 추상 마을의 옛 요새.

3

4

5

죽은 것 같이 메마른 땅에 자라는 푸른 생명은 거대하다

추상에서 사마르로 향하는 길에는 나무 한그루 보기 어려운 황량한 길과 깊은 협곡 아래로 흐르는 회색 강줄기가 있었다. 그 옆엔 인간의 손에서 멀어져, 세월에 무너진 요새와 성벽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건조한 대기로 인해 미세한 흙먼지가 가득하고 길은 해변의 모래처럼 푹푹 발이 빠진다. 높은 바위 절벽을 오른쪽에 끼고 구불구불한 협곡의 벼랑을 지나는 길은 쉽지 않았다. 굽이굽이 꺾여 오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아찔하고 메마른 이 땅에서 만났던 푸른 밭과 생명 가득한 마을의 풍경이 너무 놀라웠다. 이곳 사람들이 물을 끌어올려 보리와 유채꽃을 키우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 풍경과 나란히 걷는 다정한 중년 부부의 뒷모습은 무스탕의 푸른 밭과 잘 어울렸다. 그 푸름이 눈부셨다. 거친 바람과 메마른 땅을 가진 무스탕에서 '푸름'과 '생명'이라는 것이 더욱 더 생생하게 아름다웠다. 나는 이곳에 중년의 고객들과 함께 왔다. 고독한 이 땅에서 며칠 걷다 보니 그 동안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삶이 빚어낸 아름다운 생명력이 더 선명히 보였다. 중년의 도전이, 부부의 사랑이, 친구와의 우정이 아름답게 보였다.

'언제 청춘이 끝났는가?'란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저도 모르게 끝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시점에서 끝났다고 명확한 포인트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청춘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아침에 텐트를 열고 나와 이 지난한 걷기와 황량한 풍경을 대면할 때, 그 동안 쌓은 안락함에서 일어나 낯선 환경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 그 모든 시점에서 청춘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싶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신다. 예를 들어 전에는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들었는데, 감각이 무던해지면서 그 동안 타지 못했던 비행기까지 탈 수 있게 되었다고. 시간에 침식 되어 깎인 신비한 풍경을 선물하는 이 곳 무스탕처럼, 그들의 청춘은 오래 되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끔은, 여정 중에 푸른 유채밭을 선물받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청춘을 살 기회가 항상 준비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맑은 아침이다. 우리는 오늘 게미를 지나 차랑으로 향한다. 게미에 도착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해발고도 4천 미터의 고개에 오르니 무스탕의 구름이 한눈에 잡힌다. 안나푸르나 봉우리가 있는 남쪽에는 몬순의 영향으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반대로 티베트 방향인 북쪽은 파란 하늘이 선명하다. 안나푸르나와 다울라기리가 몬순 바람을 막고 있어서 이 거대한 산을 넘어 생존한 구름은 건조한 바람이 되어 북쪽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생명력이 질긴 구름들은 기다란 모습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름 사이사이로 히말라야의 하얀 봉우리가 보이고 건조한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덮고 있는 광야가 눈에 들어온다. 한 때 바다 아래 있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황갈색 사막 사이사이 침식의 흔적이 뚜렷한 협곡이 풍경을 대신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었다. 황량함을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스탕 완전일주의 반환점이자 하이라이트 로만탕으로 향하는 날이다. 주방팀에서는 오늘 늦은 점심을 먹을 것이라고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다. 직접 반죽해서 튀긴 티베트 빵, 야크 치즈, 삶은 달걀, 삶은 감자를 챙기고 길을 떠났다. 지금까지 걸었던 길은 하루에 두 번 정도 4천 미터 고개를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코스였는데, 오늘은 물이 흐르는 개울 옆으로 야크 무리를 지나 하얀 백사

6

1 서로 서로 손을 잡고 업으면서 대창 콜라를 지나는 모습.
2 차랑에서 로만탕가는 백사장 같은 사막 길.
3 무스탕 완전일주를 마칠 때 즈음 서로가 위로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
4 묵티나트에서 좀솜으로 돌아오는 길. 다울라기리(8,463m)와 투구체(6,920m) 봉우리가 보였다.

장 같은 완만한 길을 걷는다. 이 길은 왠지 아무 말 없이 걸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참 다양한 지형이다. 거대한 침식 작용으로 흙 사이사이 자갈이 그대로 드러난 콘크리트 같은 길을 걷는가 하면, 고운 진흙이 쌓인 퇴적층을 보기도 하고, 거인이 주물러 만든 울퉁불퉁한 찰흙 같은 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눈부신 하얀 백사장 같은 길을 걷는다.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풍파가 만들어낸 대지가 그 위를 조용히 걷는 어르신의 마음을 알아줄까. 조용한 대화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뒤에서 나도 조용히 걸었다.

고민과 결정 그리고 협력의 시간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 스스로 들어가 어려움을 마주하고 헤쳐 나가면서 지혜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트레킹을 해왔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칼리 간다키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정하고 협력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 문제를 풀어야만 했다.

가이드 지반: 대장님, 올라오는 길에 강이 무릎 위까지 옵니다.
나: 강폭은 얼마나 되었어요? 건널 수 있겠습니까?
가이드 지반: 강폭은 5m 정도고 4~5개 정도가 있어요. 강이 많이 불면 위험합니다.

로만탕을 돌아오는 길에 대창 콜라(강)를 건너야 하는데 강물이 많이 불었다는 소식을 둘째 날 밤에 들었다. 가이드 지반을 정찰 보냈고 로만탕에서 만나자고

했다. 대창 콜라 근처 로지는 통신이 안 되는 오지 중에 오지라 현지인들도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정찰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로만탕에서 만나 그가 가져온 소식을 들어보니 물이 불어서 건너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았다. 만약 강물을 건넌다 해도 돌아오는 길에 야라와 땅게에서 두 밤을 자고 가야 하는데, 그 중 하루는 20km 정도 되는 긴 코스를 지나야 한다.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아야 했다. 게다가 이미 몇 일행은 지쳐 보여 고민이 깊어졌다. 주방에서 스태프들과 모여 회의를 시작했다.

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프로 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가이드 지반: 네, 저희들이 중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이동하면 강물이 불기 전이라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서 트랙터를 보았습니다.
나: 그럼 이제 비만 많이 내리지 않으면 가능성은 있네요. 트랙터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우리보다 하루 먼저 출발해서 확인해 주세요.
가이드 지반: 네 알겠습니다, 대장님.

모든 준비상황을 정리한 후 일행에게 알렸다. 강을 건너고, 하루는 20km를 걸어야 하는 완전일주 코스로 가자고 모두의 의견이 모아지면 출발하기로 했다. 만약 걷는 속도가 늦어진다면 중간에 텐트를 치고 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없다면 올라왔던 코스를 되돌아가야만 한다. 우리는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모두 중간에 텐트를 치고 잘 각오를 했다. 이에 힘을 얻어, 그동안 맨 뒤에서 걸으시던 분이 한마디를 꺼냈다. "대창 콜라(강)을 건너기 전 마을인 야라까지 가보죠." 우리는 1% 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도전해 보기로 했다.

나: 만약 강물을 건넌다고 한다면, 중간에 일행이 지쳐서 텐트를 쳐야 할 수 있어요. 스태프 잘 곳은 있는가요?
가이드 라나: 저희는 다이닝(식당) 텐트에서 자면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쿡 대장: 그냥 저희 놀면서 밤새죠?

아무렇지 않다는 듯 꺼낸 쿡 대장의 말에 모두 웃었지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

나: 중간에 텐트를 치면 물 공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요?
가이드 라나: 네, 중간에 빠하라는 샘터가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 지반: 대장님, 그리고 땅게 마을에 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걷는 게 힘든 사람은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창 콜라를 건너야 하는 날, 날씨가 좋았다. 야라에서 대창 콜라를 건너 땅게를 지나는 20km도 걷기로 했다. 고도가 그리 높진 않았지만, 쉽지 않았던 길이었다. 네팔 스태프의 경험과 준비, 그리고 우리의 도전정신이 약했다면 무스탕 완전일주는 불가능했다. 함께 걸었던 모든 분들과 시간을 뛰어 넘은 청춘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 나의 참 자랑이고 행복이다.

2

3

4